

●●● 남 호 경 (사)전국한우협회 회장

축산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축산박람회 기대



본고는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KISTOCK) 추진위원장인 (사)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을 만나 박람회를 한달여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포부와 축산인의 한 사람에서 한우협회장으로 오기까지 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 남호경 회장

1973. 2 영남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1979~1982 봉명산업 도투락 목장 사료담당 과장
1982~1985 삼원축산 축산사업부장
1985~현 목민농장 운영(경상북도 경주시)
2003~현 (사)전국한우협회장 역임
2004~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2005~현 한우자조금활동자금관리위원장

생산자의 한사람으로써 입장 대변

경상북도 경주 태생인 남호경 회장은 경주 축협 의 2대 회장을 역임한 부친의 영향으로 영남대학교 축산과에 입학하면서 축산학도로 입문했다. 경주는 관광도시임에도 많은 수의 한우농가가 밀집되어있어 축산인으로 들어서는데 환경적 요인이 컸고, 졸업 후 봉명산업 도투락 목장(1979년)에서

사료담당으로, 삼원축산(1982년)에서 축산사업부 부장으로써 생산체계를 담당하였다.

친부와 함께 직접 한우농가를 경영하면서 한우 한 마리 시세가 20~30만원을 넘지 못할 때 전국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을 맡으면서 생산자의 목소리를 외쳤고, 옆친데 덮친격으로 호주산 육우가 수입되면서 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

를 겪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농가의 실질적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국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03년 (사)전국한우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는 200두의 한우를 사육하면서 생산자의 마인드를 갖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큰 성과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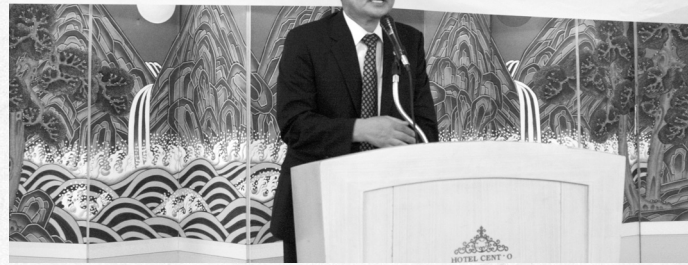
전국한우협회는 1999년 설립되어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농가의 열망만큼이나 일사불란하게 성장했고 자조금의 빠른 정착으로 생산자의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했다. 2001년 관세를 지켜내기 위해 축산농가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40%, 양돈 25%, 양계 20%로 관세가 낮춰지면서 관련인 모두가 국내 축산업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농업 전품목에서 축산업이 1/3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면서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박람회, 생산자 높은 참여율 기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대전국제축산박람회로 자리 잡기까지 한국양계박람회(1991년)가 큰 가교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박람회는 축산관련 기자재·동물약품·사료 업체의 소개를 통해 국제 축산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서울에서 개최하던 박람회는 국제박람회인 만큼 외국업체 및 관람객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대회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면서 '대전국제축산박람회'로 거듭나고 있다. 남 회장은 '축산물브랜드전의 경우 서울 중심지에서 개최하면서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지만, 축산박람회는 독일의 하노버 국제박람회처럼 교통의 중심지에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산자 및 관계자의 참여

2007 In Daejeon **Journalist Program**
KISTOCK 2007 Organizing Committee June 18, 2007 ~ June 21



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업체 및 생산자의 참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 상당할 것으로 예상

올해는 유난히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 접수해 최대한 참여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람객에게 유익한 박람회로 다가가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역대 박람회보다 많은 해외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 베이징 무역관, 프랑크푸르트, 암스텔담 등 해외홍보에 힘을 쏟는 등 내실 있는 박람회를 만들려 박차를 가했으며, 해외 축산관련 언론을 대상으로 박람회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내 축산업의 현황과 규모 등을 해외에 소개하는 해외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을 지난 6월에 진행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동남아뿐 만 아니라 중국 측 저널리스트를 추가 구성해 한국의 축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해외 참관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람회는 생산자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국제적 장소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축산업을 한 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산인들의 잔치로 한마음을 갖는 자리가 될 것임을 언급했다.(대전축산박람회 개최 관련기사 97페이지 참조) (정리 | 장성영 기자)